

#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경험과 적응에 관한 현상학 연구

천해리\*, 신동열\*\*

남양주 가정과 성 상담소\*,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Resilience of Incest Sexual Victims in Adolescence

Hae-Lee Chun\*, Dong-yeol Shin\*\*

Namyangju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Chief\*,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겪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와 현실을 그들의 목소리로 전달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과 상담을 통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해하고 기록하였다.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부모의 정서적인 방치와 가족구성원의 폭력적 행동과 위협, 침묵을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감과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둘째, 성폭력 사건에 의한 고통과 후유증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 현실부적응과 사회활동 회피를 반복하면서 역할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의 후유증은 PTSD를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PTSD의 경험은 참여자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에 의존하고 환청과 환각, 망상의 경험으로 외부활동을 더욱 기피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넷째, 적응 과정을 통한 변화는 사건에 대한 직면과 분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다.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 표현하지 못한 말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현실에서의 극복 경험은 참여자에게 자기존중감과 삶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기효능감, 건강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서 근친 성폭력 트라우마가 새로운 일상의 위기를 통해 재경험되고 각 과정마다 새로운 적응 과정을 반복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주제어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심리경험, 적응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roviding new perspectives by conveying the various psychological changes and realities experienced by victims of incest sexual violence after the incident, And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and record it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were disturbed by the emotional neglect of their parents and forced violence, threats, and silence by their family members, resulting in disbelief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low self-esteem and suffered constant difficulties in daily life. Second, the suffering and aftereffects of sexual violence experienced the conflict of roles by repeating the real maladjustment and social activity avoidance as the fear of being informed about the event, the negative thought about oneself, and the difficul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rd, the aftereffects of incest sexual violence in childhood:adolescence were found to be extreme with regard to PTSD. The PTSD experience has become a factor that forces participants to rely on substances, such as psychiatric medications and alcohol, and further avoids external activities with hallucinations and delusions. Fourth, the change through the adaptation process is a new perspective on life, facing and separating the events. During the adaptation program, they tried to express their words and feelings that they could not express because of the past hurts, to set goals for living their life, and to move forward.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reality has enhanced participants' confidence i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healthy self-control ability.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suggest a model in which the incest sexual violence trauma is reexperienced through the new daily crisis and the new adaptation process is repeated for each process.

**Key Words** Childhood:adolescence, Incest sexual violence, Psychological experience, Adaptation process

Received 04 Apr 2021, Revised 12 Apr 2021  
Accepted 19 Apr 2021  
Corresponding Author : Dong-yeol, shi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counme2@gmail.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피해자는 분열된 감정의 혼란 속에서 환상을 통해 두려움과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체험과 성폭력 후유증은 환각이나 환청으로 나타나거나 침습적인 망상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삶의 패턴을 파괴하는 형태를 보인다.

Roesler와 Wind(1994)는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64%가 성인기가 되기까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으며, 많은 아동들이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에 관해 말하기 어려워한다고 밝혔다[1]. 근친 성폭력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에 의하면,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문제에 관해 외부에 말하기 어려워하며, 법적인 처리는 더욱 기피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법적인 처리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견뎌 왔다.

기존의 선행연구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와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성폭력 상황에 대한 후유증과 회복과정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이 진행된다면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복귀와 살아가는 과정을 다루는 적응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근친 성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 경험들을 기술하고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경험, 상담을 통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아동·청소년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 다양하게 아동기를 정의한다(신기숙, 2010)[2].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 관련 현행법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행위를 일반

성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의 관점으로만 19세 미만까지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로 보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의 정의를 받아들여 사건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기를 만 19세 미만까지로 본다.

### 2.2 근친 성폭력에 대한 심리사회적 이해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근친 성폭력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규정한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일 때 강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적 용어에 의해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친의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부모와 형제의 2촌까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근친 성폭력으로 정의한다.

#### 2.2.1 근친 성폭력의 현황

근친 성폭력 피해자 수는 2007년 211명에서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13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근친 성폭력 상담이 전체 성폭력 상담의 9~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친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6년 통계에 의하면 피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21.8%, 5년 이상인 경우가 11.9%로 성인 피해자에 비해서 피해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DSM-5에 의하면 근친 성폭력은 아동 성폭력의 하위 분류로 나타난다.

#### 2.2.2 근친 성폭력의 심리사회적 후유증

##### 가) 정서·인지 후유증

##### (1) 불안감·긴장감·강박감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감은 성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피해를 당했던 장소나 계절, 특히 민감한 이들의 경우 당시와 날씨가 유사할 때도 반응을 일으킨다. 중요한 점은 성폭력 피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반응의 원

인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전이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2) 무력감과 우울증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우울은 정상적인 삶과 안정감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애도반응이다(채규만, 2018)[3]. 단기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에게 원인을 돌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게 된다.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일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된다.

(3) 죄의식과 수치심

근친 성폭력의 죄책감은 도덕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안 되는 상대와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자신이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모른다는 생각과 상대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회를 거듭한다. 이명희(2003)는 장기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자신이 공범이거나, 가족을 유혹한 사람이라는 죄의식에 시달린다고 보고했다[4].

(4) 분노와 적개심

피해자는 자신의 양육자에 대한 감정과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분노와 혼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노 표출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신의 생활이나 신체를 파괴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5) 낮은 자아존중감과 왜곡된 자아인지

이명희(2003)는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상실감이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상실감의 원인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의 손상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자 왜곡된 자아인지를 가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4].

나) 사회·대인 관계적 후유증

Goodwin(1989)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능력이 결여되고, 일반인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경향은 결혼생활로 연결되어 갈등이나 성적 역기능성으로 나타난다[5]. 대인관계에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요인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다. 이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상대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대인관계를 회피하

고, 감정적인 기복이 잦으며 감정표현이 불안정하다.

재피해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금 성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허정은(2017)은 재피해화와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심리적 부적응, 정서조절곤란, 외상 유발 역동을 들었다. 반대로 재피해화를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가족의 기능을 들었다[6].

다) 신체적 및 성적 기능의 영향

(1) 성적 어려움

Finkelhor(1990)는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강한 남성 혐오감을 보이며, 성적 불감증이나 성적 죄의식에 의해서 성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했다[7]. 극단적인 반응이란 성에 대해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성관계, 과도한 노출, 과도한 자위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런 과도한 노출은 여러 남성과 관계를 가지는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혹은 과도한 회피로 결혼생활에 낮은 만족감을 느끼는 문제도 보고되었다.

(2) 신체화 장애

일반적으로 신체화라는 용어로서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신체적인 고통과 증상을 경험하면서 타인에게 증상을 호소함과 동시에 치료를 받으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DSM-5에서는 신체형 장애의 하위분류로 나타나며 정신분석의 입장에서는 억압된 감정의 신체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행동적 후유증

(1) 약물남용

성폭력 피해자는 불면, 불안, 우울의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적 처방을 받는다. 혹은 괴로운 기억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술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반복되는 괴로움에 약이나 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2) 자기 파괴적 행동

성폭력 피해자에게서는 자해 행동이 관찰된다. 채규만(2004)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30%가 자해 등의 신체 반응이 나타나며,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행을 당할 때에 고통을 경험하지만 가해자로부터 긍정적인 사랑과 관심을 느꼈으며 감정에 대해 재경험하기 위해서 자해를 선택한다고 보고한다[8].

(마) 정신과적 진단

(1) 해리 장애

성폭력 피해자는 외부에 존재하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정신과 진단에서 해리(dissociation)와 연결된다. 일부 피해자는 이인화/현실감장애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억과 관련해서는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나타내는데, 이는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없었던 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해리성 정체감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는 과거에는 다중인격장애로 지칭되었다. 해리 장애의 일종으로 한 사람의 안에 둘 이상의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2) 우울증과 불안장애

성폭력 피해자가 자주 겪는 증상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다. 초기에는 사건에 대한 우울감이었던 것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폭력 사건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은 것 때문에 범불안장애도 나타내는데, 과도한 불안에 의해서 외출이 어렵거나 심할 경우 방을 나서면 죽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개인이 외상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 고통을 느끼며 사건과 관련하여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회상이나 꿈, 혹은 외상성 사건이 재발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신경민(2014)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PTSD에 대한 심리적인 증상과 인지 방식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상과 우울증을 심화하는 데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자기비난을 포함하는 죄책감, 수치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4) 외상유발적 역동(traumagenic dynamics)

Finkelhor(1990)는 외상유발적 역동(traumagenic dynamics) 모델을 통해 아동기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설명했다[7]. 외상유발적 역동의 변인은 무력감, 배반감, 낙인화로 구분할 수 있다.

근친 성폭력 피해자는 양가감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잃고, 환상을 통해 두려움과 분노의 대

상을 만들어내면서 환각이나 환청으로 이를 표현하거나 삶의 패턴을 주기적으로 파괴하는 형태를 보인다.

2.2.3 성폭력 피해이론

(가) 외상성 스트레스 이론

외상성 스트레스 이론은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신체적·심리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PTSD 현상에 대하여 ‘병리적’ 측면이 아닌 성폭력이라는 생존의 위협에 대한 적응적 반응이라는 관점이다.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침습적 기억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종류의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반복적인 외상을 경험할 경우 사건 당시의 발달 단계에 고정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사건 당시의 연령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나) 상실이론

상실이론은 삶의 중심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인 힘이 외부의 폭력과 협박에 의해 박탈되었고 보는 관점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한 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혀보고, 수용함과 동시에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을 필수적으로 본다.

(다) 여성학 이론

여성학 이론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 나타내는 증상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면서 피해 여성을 다시금 피해자로 몰아가는 모순을 지적한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 여성의 상처를 이해하고, 비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꾸며 자기통제감을 재확립해서 자신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

(라) 자아발달 이론

채규만(2002)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통합된 자아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사회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삶에 대한 안정성과 신체에 대한 안정성 및 통제 능력을 키워야 하며, 독립성을 높이면서 피해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보았다[10]. 자아발달 이론은 외상으로 인하여 특정한 시기에 정체된 자아의 성장에 유용한 이론이며, 아동기에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인 접근방식으로 작용한다.

### 2.3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적응을 위한 심리 치료 모델

#### 2.3.1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적응 개념

Anderson과 Hiersteiner(2008)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응이란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만족하는 것,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1].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경험을 피해자가 제어할 수 있을 때 적응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제어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적응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 2.3.2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적응 과정

##### (가) 실존주의 상담을 통한 피해자 적응

본 연구에서는 Emmy van Deurzen이 분류한 인간의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여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원동력과 대응되는 것을 선택의 적합성으로 본다. 또한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치료는 삶을 책임지고,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검토하고 발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의 적응과 일치한다. Emmy van Deurzen이 분류한 개인이 경험하는 각 차원의 위기는 다음, <표 1>과 같다(Emmy van Deurzen, 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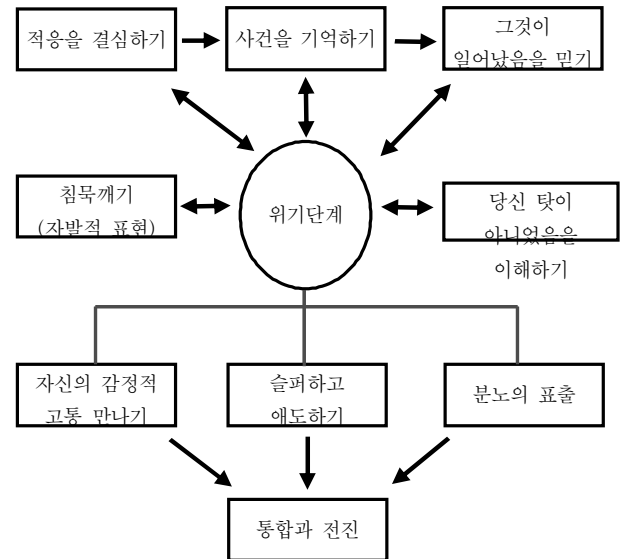
<표 1> Emmy van Deurzen(2017)이 분류한 각 영역의 갈등, 모순, 도전들

세계 \ 개인	물질 (세상과의 관계)	사회 (대인 관계)	개인 (자신과의 관계)	영적 (관념의 관계)
물질적	자연 생명/죽음	사물 즐거움/고통	자신의 몸 건강/병	우주(절서/ 조화/혼돈)
사회적	사회 사랑/증오	타인 지배/복종	자아 수용/거절	문화 소속/고립
개인적	개인 정체성/자유	나 강점/약점	자기 일치/비일치	의식 자신감/혼란
영적	무한성 선/악	관념들 진실/거짓	영 의미성/무가치	양심 옳음/그림

##### (나)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적응 모델

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에서 적응 과정은 ‘나선형’과 ‘계단형’의 형태로 분류된다. 신동열(2010)은 성폭력을 경험한 중년기의 회복 과정이 직선적인 형태가 아

니라 진전과 퇴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회복 단계로 진행되는 나선적인 형태라고 보고하였다[13]. 임상 현장에서는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적응 이론을 다룰 때 회복 단계와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Bass와 Davis(2012)의 이론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Bass와 Davis의 10단계 적응 모델을 정리하면 다음[그림 1]과 같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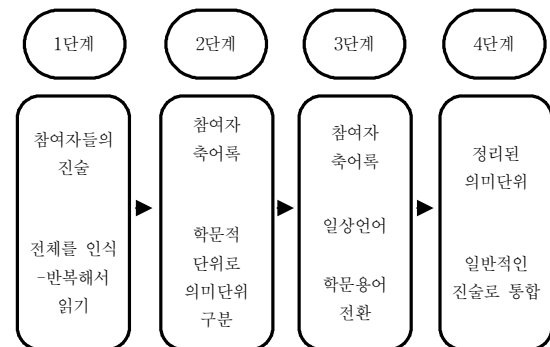


[그림 1] Bass & Davis의 적응 모델의 현장 적용

### 3. 현상학적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 3.1 연구의 개념 및 설계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에 근친 성폭력을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상학의 연구방법 중 Giorgi의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단계는 [그림 2]와 같다[15].



[그림 2]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단계

### 3.2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및 배경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15)이 언급한 대상 선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선정했다[16].

- ① 아동·청소년기의 시기의 근친 성폭력 경험으로 성폭력 상담소에 자의로 상담을 의뢰한 자들 중 근친 성폭력 가해자가 2촌 이내인 자
- ② 사건 경험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여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자
- ③ 연구 교육의 목적으로 사례사용을 허락한 자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학 력	연 령	결 혼 여부	출 생 순 위	현 재 가족 관계	피 해 증상	직 업
A	대학교 졸업	26세	미혼	1남1녀 중 둘째	부모 오빠	침투적 분열감	보건 교사
B	교육대학 졸업	47세	기혼 (이혼)	2남2녀 중 넷째	부모	조현 증	기간 제 교사
C	전문대 졸업	26세	미혼	2남1녀 중 셋째	독립	해리 성 정 체감 장애	사회 복지 사

‘근친강간 히스토리 질문지(Healing the Incest Wound: Adult Survivors in Therapy)’를 기반으로 심층 면담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드라마상담 및 자조모임 형식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Christine A. Courtois, 1988)[17]. 반구조화 질문지의 내용은 근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PTSD를 통합한 후유증에 대한 질문, 극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의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접상담은 3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수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진행 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의 진행 과정

사례자	일 정	내 용
사례자 A	2016년 6월16일 ~ 2017년 12월	전화상담 면접상담 드라마심리상담 자조모임 추후상담
사례자 B	2016년 8월 29일 ~ 2017년 9월	전화상담 면접상담 추후상담
사례자 C	2016년 7월 ~ 2017년 12월	전화상담 면접상담 드라마심리상담 자조모임 추후상담

### 4. 연구 결과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가족환경, 후유증, PTSD, 적응 과정을 주요영역의 주제 의미로 도출하여 4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한 후 관련된 의미를 50개로 요약하고 상위 개념인 12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요약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가족환경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아버지, 약하고 의존적인 어머니, 가족의 역기능적 환경, 상처 입히는 가족 등의 가족환경 구조를 <표 4>에 정리했다.

<표 4> 피해자들의 가족환경

주요영역	하위구성	의미단위	빈도		
			일	전	번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가족환경	권위적인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		
		아버지의 외도 경험			○
	약한 어머니	어머니와 자녀의 왜곡된 관계	○		
		의존적인 어머니	○		
		가족의 역기능적 환경	○		
	가족의 역기능적 환경	가족 내의 단절된 지원체계	○		
		가족 간의 언어소통	○		
		역기능적 가족	○		
	상처 입히는 가족	사건에 대한 가족의 은폐	○		
		가해자의 폭력적 행동		○	
		가해자 옹호	○		
		정서적인 방치	○		

참여자들의 가족 구조를 살펴보면 부부 간의 의사소통 부재 및 가정폭력 문제가 자녀들에게도 정서적 영향

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불일치는 결속력을 약하고 위태롭게 하며 근친 성폭력 문제로 발생하였다. 위기를 겪는 가족의 경우 가족 내부의 가장 약자를 희생하여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 경우 가정 내에서 가장 약한 어린 여성이 성적 폭력에 노출되면서 희생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이 근친 성폭력사건 경험 후 삶에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건이 떠오를 때의 후유증, 신뢰에 대한 문제 등을 <표 5>에 정리했다.

<표 5> 사건 경험 후 피해자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

주요영역	하위구성	의미단위	빈도		
			일	전	변
성폭력 사건 이후의 심리적 고통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 며 약하게 여김	자기비난과 부정적 자기귀인	○		
		낮은 자존감, 죄의식	○		
		자신의 분노를 두려워함	○		
	고통 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고 사건을 기억함	이상 성행동		○	
		불면증, 악몽	○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괴로움	신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자살충동, 자해			○
		사회생활 및 관계의 기회	○		
		경계와 역할의 모호성	○		
		남성과 관계 맺기가 어려움			○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움			○
		성적인 문란 및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성적 행동 - 성행위와 애정의 혼란			○

신체 인지 영역에서는 집중의 어려움, 사건과 비슷한 조건에서의 어려움, 기억의 단절, 섭식장애, 환청과 환각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표 6>에 정리했다.

<표 6> 심리적 경험으로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영역	하위구성	의미단위	빈도		
			일	전	변
심리적 경험으로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서 영역	대인기피증	○		
		강간 외상 증후군	○		
		침습적 기억	○		
		조현증			○
		이인증		○	
		유아화			○

신체 인지 영역	집중의 어려움		○		
	사건과 관련된 조건을 접할 때 신체적, 정서적으로 마비되는 느낌		○		
	기억의 단절 - 해리성 기억상실		○		
	섭식장애		○		
	환청과 환각		○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해리 경험에서 특이한 점은 자신이 한 대화 내용을 기억해내는 순간이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침습적 기억에 의해 멍해진 상태에서 글을 적도록 하면 제3자의 이름과 나이를 만들어서 사건을 구성하기도 했다. 자해의 경우에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만들거나, 혹은 그런 상처 자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기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경험 후 일상에 대해 적응해 가는 과정은 수용, 개방, 일상의 회복의 단계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표 7>에 정리했다.

<표 7> 피해자들의 일상에 대한 적응 과정

주요영역	하위구성	의미단위	빈도			
			일	전	변	
피해 자의 일상 에 대한 적응 과정	수용 하기	피해 사실의 인정	○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함	○			
		개방 하기	상처에 대한 분노 표현	○		
	일상 의 회복	적응 의 느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함	○		
			가해자를 돌아봄	○		
		자조 모임 을 통한 추수 적 접근	나를 용서함	○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함	○		
			자조모임의 가치	○		
			변화: 자신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음	○		
			다른 피해자를 만나며 위로받음	○		
			대인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연습함	○		
			경험과 관련한 생각을 재정리하며 나아감	○		
			경험의 관련자들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며 다시 맞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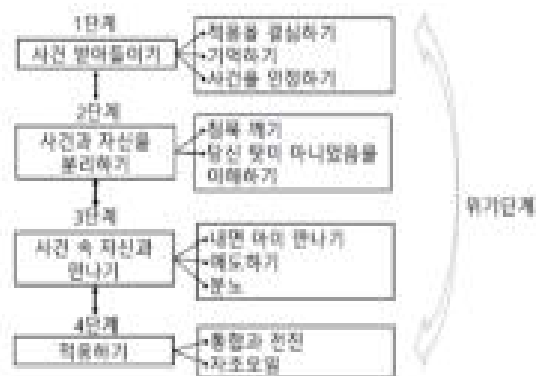
참여자들에게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일상의 도전이자 삶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직면하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쁨이자 행복으로 인식되어졌다. 근본적인 치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 5. 논의

Emmy van Deurzen(2017)은 네 가지 영역의 실존적 위기를 이겨낼 경우, 더욱 강한 삶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삶의 원동력을 발견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1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개인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에서 불안, 부조리, 스트레스라는 다양한 실존적 위기를 경험했고,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 속에서의 다름과 해리의 경험을 이겨냈다.

실제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다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알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출발했으며, 가족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역기능적인 가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그로부터 해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대인관계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에 막상 직면했을 때 느낄 것으로 여겼던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건 받아들이기→사건과 자신을 분리하기→사건 속 자신과 만나기→적응하기의 4단계로 구성된 적응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매 단계마다 위기단계가 나타나며, 적응에 성공한 후에도 일상의 위기가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므로 새로운 사건 받아들이기의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근친 성폭력 피해자들의 4단계 적응 과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4단계 적응 과정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 경험에 대한 가족과의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정서적인 방치와 함께 가족이자 가해자인 가족구성원에게서 폭력적 행동과 위협을 경험하였다. 가족이 가해자의 편을 들며 침묵을 강요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감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그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 사람을 신뢰하고 싶지만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후유증 등을 경험했다.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지만, 다시금 대인관계와 사회활동 회피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떨어뜨렸다.

셋째,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의 후유증은 PTSD를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PTSD로 인해 참여자들은 역할의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성장 과정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PTSD의 경험은 스스로 자신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게 하였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물질에 대한 의존은 관련된 물질이 없을 경우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였으며 환청과 환각의 경험은 참여자가 외부활동을 더욱 기피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넷째, 적응 과정으로 인한 변화는 사건에 대한 직면과 분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다.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상처 입었던 과거에 표현하지 못한 말과 감정을 표현하고,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근친 성폭력 사건에서의 극복 경험은 참여자에게 자기존중감과 삶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기효능감, 건강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의 상담심리 치료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근친 성폭력을 경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존주의에서 제시하는 실존주의적 위기를 중심으로 하여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 어려움을 현장의 언



어로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일상 적응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둘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근친 성폭력 피해 후유증과 PTSD가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속시켜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밝혔다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셋째, 성폭력 트라우마의 경험이 적응 과정을 통해 극복한 후에도 발생하는 재경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통해 새롭게 적응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업, 대인관계, 가족관계의 자극을 통해 위기를 경험하고 트라우마를 이겨내며 획득한 실존적인 힘을 통해 새롭게 적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청소년기 이후의 청년기, 성인기의 다양한 대상자의 심리경험과 적응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 후유증과 적응의 과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성폭력 피해를 겪는 대상이 여성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성폭력 피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Thomas A. Roesler & Tiffany Weissmann Wind. (1994). Telling the Secret: Adult Women Describe Their Disclosures of Incest, *Journal of medicinal food*.

[2] 신기숙. (2010).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채규만. (2018). 『성행동심리학』. 서울: 학지사

[4] 이명희. (2003).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 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Goodwin. J. (1989). Sexual abuse ; Incest victim and families, Year Book. Medical Publishers

[6] 허정은. (2017). 아동기 성학대 피해자의 성적 재피해 자화에 대한 변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Finkelhor, D. (1990). Early and long-term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an updat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5): 325-330.

[8] 채규만. (2004). 『성피해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9] 신경민. (2014).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의 변화와 인지적 요인의 효과. 이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채규만 (2002).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페이지 37-64). “여성연구논총”,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1] Anderson & Hiersteiner. (2008). Recovering From Childhood Sexual Abuse: Is a “Storybook Ending” Possibl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6(5):413-424.

[12] Emmy van Derzen. (2017). 『실존주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13] 신동열. (2010). 性暴力을 經驗한 中年女性의 自尊心 回復過程에 對한 現象學的 研究. 건신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Ellen Bass & Laura Davis. (2012). 아주 특별한 용기』. 파주: 도서출판 동녘.

[15]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ousands Oak, CA:Sage

[16] John W. Creswell. (2015). 조홍식 외 3인 공역.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17] Christine A. Courtois. (1988). *Healing the Incest Wound: Adult Survivors in Therapy (Appendix A)*, W. W. Norton & Company, Inc.

## 신 동 열 (Shin, Dong Yeol)



- 건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 (상담심리학) 졸업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상담 등
- E-Mail : counme2@gmail.com

천 해 리 (Chun, Hae Lee)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  
(상담심리치료학) 졸업
- 남양주 가정과 성 상담소 소장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상담 등.
- E-Mail : hlchun@hanmail.net